

청소년 문화 큰잔치 '활짝'

청교련·파라미타·한불청, 음악 미술 등 경연 풍성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인증 캠페인

청소년의 달 5월, 새싹불자들의 신심 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립을 위한 대항축제가 잇따르고 있다. 30여년 동안 새싹불자포교를 앞장서 온 (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청소년들의 예술적 소양 고취를 위한 제9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를 펼친다. 또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총재 성타),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가 참가한 후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해 열리는 이 행사는 중고등학생으로 사찰 및 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연 종목은 전통예술부문으로 △국악연주 △사물 △농악 △고전무용 등과 대중예술 부문에 △연극 △현대무용 △시낭송 등의 경연이 마련된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대상인 문화체육부 장관상과 최우수상을 비롯 총 5개 부문에 상장과 상품이 각각 수여된다.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은 15일까지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처는 종로구 견지동 39-1(산은중심 3층) (02)735-8165, 733-5138

파라미타 오는 12일 제1회 파라미타 청소년문화대

년 및 지도자 통일문화예술대전을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통일을 위한 문화예술적 통일을 회복시키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중고를 비롯 대학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부문은 문학부(운문, 산문) 미술부(수채화, 파스텔화) 종합예술부(불교미술, 조각, 건축, 기타) 합창부(지정곡 1곡, 자유곡 1부)이다. 특히 종합예술부는 오는 23일까지 소정의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예술대전의 대상에는 통일원장관상과 문체부장관상을 비롯 4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한편 입상자

발표는 6월4일자 현대불교신문과 한국 불교신문, 소년조선일보에 게재하며 시상식은 6월 15일 오후3시 성북동 중앙 불교회관 살롱에서 갖는다. 이번 예술대전에서 종합예술작품과 청소년부 우수작품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세종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17일까지며 접수처는 성북구 성북동 292-1 중앙불교회관. (02)747-5787-8.

김중근 기자



△청소년교화연합회가 발인 청소년 종합예술대회. (사진은 지난해 대회 장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미달 큰잔치를 준비하는 자비예술단 단원들의 모습이 분주하다.

청교련-26일 동국대 중강당
파라미타-12일 올림픽 역도경기장
한불청-19일 용산전쟁기념관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청소년축제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가 따스한 햇살이 되어 신록의 푸르름을 더해주는 부처님 오신날에 즈음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맘껏 발휘해 보는 것도 건전한 심신수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교련 오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청림30주년 기념 제9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예술적 소양의 고취를 위

축제를 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에서 개최한다.

파라미타 발대식 및 서울지구출범식을 겸한 이번 행사는 1부 파라미타 로고선포에 이어 2부 문화대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문화대축제는 천마현대무용단의 재즈댄스, 동대부고의 탈춤공연을 비롯 인기 가수 이상우, 그룹 어스, 김덕수 사물놀이팀이 특별출연, 청소년들과 함께한다. (02)720-7060

한불청 오는 19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제1회 참나청소년

초파일 봉축준비 바쁜 '자비예술단'

24일 석관동 '자비의 집' 지역주민 초청공연

"순글을 험하게 위로 쪽 뻗어가지. 밝은 살포시 내리고."
"쿵 등덕등 등덕덕"
연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선생님의 손끝을 따라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려고 분주한 동원(수유초등학교 4). 저녁 6시가 되자 동원이 또래 어린이들의 몸놀림과 선생님의 자취로 20여명 남짓한 석관동의 한 법당안이 어느새 가득한 생기로 활기를 띤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념으로 오는 24일 석관동 자비의 집에서 지역주민 3백여명과 함께 '한미달 큰잔치'를 펼칠 자비예술단 어린이들의 출사위와 고사리 같은 손에서 뿜겨 내는 징과 북, 장고의 풍물소리가 자비의 집 법당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었다.

청원스님이 월곡포교당을 개원,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교실을 개설하면서 인연이 된 1백여명의 어린이들 중에

예술적 재능이 있는 학생 20여명을 차출, 교육을 하면서 시작된 자비예술단은 미래불교를 이끌어 갈 새싹불자들

"1백여 어린이 땀으로 연습 춤사위마다 부처님 오시네"

이 한국적인 흥을 제대로 풀어내고 향유하도록 하기위한 꿈의 보금자리다. 청원스님의 숨은 노력으로 92년 이래 전통의 흥을 이어온 자비예술단 단원들은 선생님의 장단에 연분홍 부채와 부드러운 춤사위로 빛어내는 땀내음으로 법당안은 향내와 어울려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를 내뿜는다. 어느새 법당은 화려하고 긴장이 감도는 공연장으

로 변해 곁에서 연잉을 맡아 연등을 만들고 있던 보살님들의 손끝을 멈추게 한다.

"어머, 벌써 8시구나. 오늘은 그만하시죠, 선생님."

땀의 연습을 지켜보고 있던 임마의 목소리에 겨우 제 정신(?)을 차린 어린이 단원들은 누구하나 한들다고 투정을 부리지도, 눈치를 볼도 없이 그저

2시간이나 지나버린 시간에 놀랄 뿐이다.

이렇듯 부처님 오신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단원들은 국내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풍부한 공연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공연장에 몰려올 동네 아주머니 아주씨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인다"고 말한다.

연신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아이들의 풍물소리와 흥겨운 우리가락이 한마음으로 뒤엉켜 법당 안의 열기는 어느새 석관동 일대를 촉촉이 분위로 자아내고 있었다.

도필선 기자

만 화 **법구경** * 길의 장 *

큰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이 향 원

만석이 이놈 아직 안들어 왔어? 그럼 회사에도 연락이...? 3일씩이나 어찌된 일이지? 으 이 말할 놈이... 이제 왔더니 이놈이 회사 돈까지 빼 갔어? 아니! 당신 허락도 없이?

쓸데없이 스포츠 카인지 뭔지를 사왔으니 그놈 타고 돌아다니느라 정신 빠진 거 같아요. 하도 애원 해서 사준 거지 누가... 으... 하루도 속 안씩어는 날이 없으니... 어디가서 꼭 떼져 버리거나 해라. 어쩔! 당신은 그런 험한 소릴 합부로... 속이 타지니까 그렇지 합부로.

미리랑 에, 에! 만석이 애비입니다. 뭐... 뭐... 으... 음주 운전으로 호수에 추락사! 아... 세상에 이런수가 만... 만석이가 어찌기에?

꺼억- 장회장 나 왔소! 위로 받고 싶어서. 아! 박사장. 나부터 너무 취했구먼. 내가 요즘 안마시고 견딜수 있나. 회사도 몰려주고 남보다 잘 사는 꼴 보고 싶었는데 그놈이 먼저... 으... 으...

이러다가 자네 꺼지 일 나겠네. 어린이나 가족에만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집착한 사람은 죽음이 휩쓸어 간다. 큰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자네 심장이야 이해하지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오래 사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 사람이 몇배나 더 많다는 걸 알아야 해. 그리고 그애가 애초 자네를 위해서 세상에 존재했건 아니란 걸 알아야 해. 사람은 업에 따라 생존했다가 업을 키워 간것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은가.

이제 마음 추스리고 자네의 남은 여생을 현명하게 마칠 생각을 하게나. 자식도 구할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구할 수 없다.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한번 죽음의 신에 붙잡히면 어쩔수 없다. 이 도리를 깨닫고 어진이는 계율을 지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서서서 밟아라.

불은 가득 법향 가득 ... 책방 여시아문

— 당당한 부모를 위한 여시아문의 제안 —

책방 여시아문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책 읽는 엄마, 아빠

책방 여시아문이 전하는 은가족이 함께 읽는 책

- 쉽게 찾는 우리 꽃(가을, 겨울)
현암사의 쉽게 찾는 우리 꽃 시리즈 세 번째로 봄, 여름에 이어 이번에는 가을-겨울 꽃을 한 권으로 묶었다. 꽃의 색깔만 보고서도 꽃 피는 시기, 특징, 용도 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엮어 놓아 녹음이 푸르른 이 계절, 산으로 들로 나가면서 호주머니에 이 한 권의 책만 살짝 간직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정서를 더욱 살찌울 수 있을 것이다.
변형판(110x205) 288쪽 / 글·사진 김태정 / 현암사 / 값 11,000원
- 쉽게 찾는 우리 나비
155종의 나비를 원색 컬러 사진 244장에 담아 놓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나비를 거의 다 모아 놓았다고 할 만하다. 봄, 여름, 가을, 철마다 발생하는 나비, 한계절에만 나타나는 나비, 들과 산기슭 혹은 산꼭대기에서만 사는 나비 등, 그 발생 시기와 생태 방법, 특징 등을 자세하고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역시 녹음이 우거진 5월에 꼭 필요한 책.
변형판(110x205) 206쪽 / 글·사진 이원규 / 현암사 / 값 9,500원
- 키는 1미터 마음은 2미터
해와 국민학교 6학년 박상욱 어린이의 일기 모음집. 삶에 대해 아무런 속박도 느끼지 않는 한 어린이의 가슴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그대로가 한 편의 시에 가깝다. 더욱이 박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빠(시인 박중석)와의 소리 없는 교감들은 아빠를 사랑하고 또 아들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빠와 아들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한다.
신국판 239쪽 / 박상욱 지음 / 기리온 / 값 4,000원
-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
저자가 수년간 어린이 법회를 지도해 오면서 어린이들에게 직접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수필 혹은 대화 형식으로 엮었다. 어른들도 항상 궁금해하는 문제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은 가족이 함께 코믹 불교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책이다.
신국판 175쪽 / 우학 지음 / 좋은 인연 / 값 4,500원
- 푸른 별의 환경 필수품
미래를 가꾸어 갈 어린이들에게 각종 핵무기의 개발, 생태계의 파괴로 병들어 가는 지구, 그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 줌으로써 상상력 함양은 물론 지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생각하며 나아가 자연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신국판 219쪽 / 문명식·주선희 지음 / 푸른나무 / 값 4,200원
- 우리 새백 가지
땃새, 여름 철새, 겨울 철새, 나그네 새와 길 잃은 새로 구분하여 우리가 평소 반드시 알아야 할 새 백 가지를 뽑아 엮었다. 특히 새에 관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도감류의 단조로움을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 사랑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데 좋은 길동무가 될 것이다.
신국판 499쪽 양장본 / 이수신 글·김수만 사진 / 현암사 / 값 14,000원
- 우리 민물고기 백 가지
어린 시절 냇가에서 미역 한 번 감아 보지 못한 사람,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걸으며 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연과의 교감을 느끼며 살았던 기억이 없는 우리 도시인들의 광활한 가슴을 별빛 쏟아지는 자연의 거리로 내몰아 줄 책. 100종이 넘는 민물고기들을 개체가 수 많은 종부터 시작하여 그 생김새를 사진과 함께 하나하나 기록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신국판 532쪽 양장본 / 최기철 글·이원규 사진 / 현암사 / 값 18,000원
- 먼 나라 이웃 나라
작가가 10여 년 간의 유럽 생활을 거치면서 느낀 그들의 생활, 문물, 사상, 문화 전반에 걸친 것을 나라별로 만화 형식을 빌려 선보인 책. 작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외국 문물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나 동경보다는 우리가 살아야 할 무대가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부라는 데 눈을 뜨게끔 강조한다. 프랑스에서 스위스까지 전 6권으로 되어 있으며 9회째 한국 어린이 도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4x6배판 각권 약 210쪽 / 이원복 글·그림 / 고려원 미디어 / 값 2,800원

책방 여시아문 초고속 인터넷 무료 검색 서비스 제공! (부디피와 연계)

— 책방 여시아문에 오시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시아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초고속 56K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만 오세요)

— 특별회원을 위해 전자 우편 주소도 할당해 드립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 및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등 전 세계 불교 관련 정보를 검색, 프린트해 기실 수 있습니다.